

1) 조 상

남자 중심의 유교식 봉제사와 별도로 부녀자 중심의 조상신앙이 있다. 조상에 대한 신앙의례를 갖는 것은, 자손들의 조상에 대한 공경심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조상이 사후 신이 되어 한 가문과 그 자손들을 돌보고 지켜주며 화복을 좌우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여 불행하게 된다고 믿는다.

조상에 대한 명칭은 조상단지·꿇것단지·제석단지 등으로 불린다. 이름에서 보듯이 신체는 단지이며, 단지 안에 새 쌀을 넣어 모시고 있다. 단지류의 그릇을 사용하고 신곡을 넣는다는 점은 조상신앙이 쌀농사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방문화가 쌀농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민간신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상단지이다. 이러한 조상은 대개 장남의 집에서 모시는데, 조상신앙에 유교식 관념이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조상신앙이 유교식 의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본래 재래의 민간신앙이었는데 거기에 외래의 종교 관념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상에 대한 명칭으로 불교식의 제석과 시준이라는 이름도 쓰이는데, 이와 같이 재래의 신앙에 불교·유교 같은 외래 종교의 관념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조상에 대한 이름은 주로 꿇것단지라 부른다. 아래의 사례는 1995년 6월 26일 필자가 현지조사한 것이다.

최춘심의 친정은 상사면인데 장손집에만 모신다. 큰방 뒤에 뒷방이 있는데, 사람이 들락거리지 않는 뒷방에 모신다. 올개심니(올벼新味)를 해서 새 쌀이 나오면, 그 단지를 비우고 쌀을 갈아넣는다. 새 쌀을 넣은 후 하얀 종이를 덮고 원새끼를 꼬아 머리를 두르고 얹전하게 모시는데 뚜껑은 덮지 않는다. 이렇게 모셔놓은 것은 아무 때나 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꿇것단지를 만지는 일은 '어매'만이 할 수 있다. 묵은쌀은 밥을 해먹는다. 꿇것단지에 특별한 의례를 행하지는 않는다. 제사나 생일날에도 상을 차리는 경우는 없다.

■ 제보자 : 최춘심(여, 50, 왕조동 현남마을 298번지)

친정이 해룡면 신대리인 배손심은 그곳에서는 꿇것단지를 안 모셨다. 현남마을로 시집와서 보니 이곳에서는 모시고 있었는데 시집이 장손집이었던 까닭이다. 뒷방 구석에 선반을 지르고 그 위에 모셔놓았다. 꿇것단지는 시어머니가 관장했는데, 쌀 갈아넣는 것을 본 적은 없다. 20여 년 전쯤 성주를 새로 했는데, 이때 꿇것단지를 버리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점쟁이를 데려다 날을 받아 산꼬랑에 버리면서 손을 비비며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빌었다고 한다.

■ 제보자 : 배손심(여, 60, 왕조동 현남마을)

가곡동 원가곡이 친정인 이종엽의 집에서는 꿇것단지를 큰방 윗목(제사 모시는 곳) 구석에 판자로 만든 선반에 모셨다. 아버지가 독자(장손)였고, 꿇것단지는 친정어머니가 모셨다. 날을 받아 해년마다 새 쌀을 갈아넣고 문종이로 봉해놓았다. 단지에 먼지가 껴 있어도 못 닦게 했다. 35년 전쯤 친정어머니가 죽은 후 큰오빠 내외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꿇것단지를 안 모시겠다고 하여 그것을 치우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지게에 짊어지고 '까장굴'이라 부르는 산 속에 모시고 왔다. 꿇것단지를 버린 후 3년 만에 올케가 죽고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꿇것단지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꿇것단지가 성주단지다.

■ 제보자 : 이종엽(여, 52, 왕조동 현남마을)

앞의 사례는 현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되어온 것에 비추어보면 조상에 대한 신앙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보자 최춘심의 경우 친정인 상사면 미곡마을에서 친정어머니가 췌것단지를 모시던 내용이다. 이런 내용은 이 지역에서 대동소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같이 참여했던 대평동 도사 출신의 다른 제보자도 친정(큰집)에서 췌것단지를 모시는 것을 보았는데 최춘심의 사례와 비슷했다고 말한다. 단지 안에 쌀을 넣는 것은 도작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곡령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지에 쌀을 넣고 한지로 뚜껑을 덮은 후 원새끼로 한지를 묶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원새끼를 두른 것은 종교적 신성물에 대한 신앙행위이다. 당산제를 모실 때 당산나무에 원새끼로 금줄을 감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다.

제보자 배손심과 이종엽의 경우 췌것단지를 모시다가 폐기하게 된 내용이 구술되었다. 가택 신앙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대개 지금의 제보자들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았던 세대라고 생각된다.